일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다채

2017년 국가기념일 지정…올해 5주년 맞아

릴레이헌화·퍼포먼스 등 통해 역사 의식 정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 의식을 정립하기 위한 '기림의 날' 행사가 오는 12일과 13일 광주 곳곳에서 열린다.

'기림의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1924-1997)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1991년 8월14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17년 대한민국 국가 기념일로 확정돼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202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시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 기념부스를 마련해 헌화행사와 함께 전시 '지금, 기억해야 하는 이유'와 영화 '나의 마음은 지지않았다' 등의 컨텐츠로 전시회를 연다.

동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30분간 동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 등을 진행한다. 또 11일부터 15일까지는 금남공원 폴리 주변에 추모의 벽과 나비 조형물 등을 설치해 기억과 교육의 장으로 추모공간을 운영한다. 동구는 앞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는 동구 인문학당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추모의 벽을 통해 노란나비 메시지 적기, 평화의 소녀상 만들기 등을 진행했다.

서구는 12일 오전 9시 구청장과 구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릴레이 합동 헌화를 이어간다.

또 이날 오후 6시까지 서구청 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 헌화 장소를 마련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남구는 평화축제와 역사투어 등으로 '기림의 날'을 기억한다.

12일에는 양림동 평화의 소녀상 및 공예특화거리 내 잔디광장에서 청소년 평화축제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오후 4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지역 청소년과 시민 8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남구청소년수련관, 봉선 청소년 문화의 집, 공하나 협동조합 등 지역 내 청소년 기관 및 마을교육공동체 등이 자유발언과 노래, 댄스 등 길거리 공연 등을 선보인다.

13일에는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양림동 역사문화 투어가 진행된다. 사전 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10가족 40명 가량이 참여하며 서부원 살레시오고 한국사 교사와 함께 양림동 3·1운동 만세길 등 양림동 역사문화 공간을 돌며 기림의 날 의미를 되새긴다.

북구에서는 북구청 주최, 북구소녀상평화인권추진위원회 주관으로 1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북구청 광장에서 축하공연과 결의선언, 참석자퍼포먼스 등을 통해 '기림의 날'을 기념한다.

또 오후 4시부터 50분간 역사골든벨을 비롯한 체험부스가 운영되며 이후 북구 초등교사 사물놀이, 용봉동 청소년문화의집 댄스동아리와 살레시오고등학교 밴드부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

광산구는 12일 오후 6-7시30분까지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헌화 및 평화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일본 정부 요구조건 퍼포먼스와 기념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으로 채워지며 오후 6시30분부터 약 5분간 위안부 역사와 할머니의 활동 내용이 담긴 동영상도 송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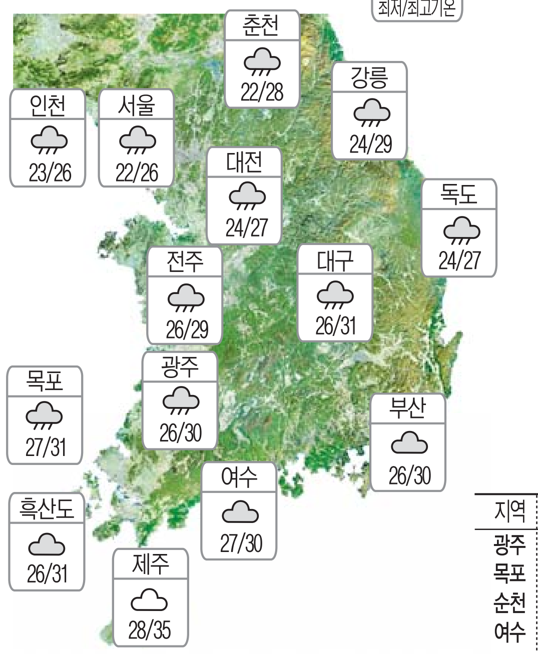
/김다인 기자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이 세계연대집회'가 10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범례 지역 / 날씨 / 최저/최고기온

해뜸 05:49 해짐 19:26
달뜸 19:17 달짐 04:13



생활정보지수

항목	지수	안내
나들이	50	우산 챙기세요
빨래	20	잘 마르지 않아요
세차	20	다음으로 미루세요
운동	60	실내운동 즐겨요

지역	강수확률(%)
광주	30-60
목포	30-60
순천	30-30
여수	30-30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1:28	06:58
	13:24	18:53
여수	08:20	02:31
	21:11	14:23

서해 남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남-남서/0.5-1.5m
	먼바다	남-남서/1.0-2.0m
오후	앞바다	남-남서/0.5-1.5m
	먼바다	남-남서/1.0-2.0m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남-남서/0.5-1.0m
	먼바다	남-남서/1.0-2.0m
오후	앞바다	남-남서/0.5-1.0m
	먼바다	남-남서/1.0-2.0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8월 12/금	(25/32)	(23/31)	(25/32)	(24/31)	(26/34)	(28/35)
13/토	(25/33)	(25/30)	(25/31)	(24/32)	(25/35)	(28/34)
14/일	(26/32)	(26/30)	(26/31)	(26/32)	(26/34)	(28/34)

▶날씨안내 : 국번없이131

시교육청, '징계 미이행' 유은학원에 과태료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법인 유은학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학교법인 유은학원 소속 동성고가 인건비로 지원된 재정결합보조금 2억3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교장 등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으나 학원 측이 이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았다.

유은학원 측은 재정결합보조금 2억3천만원을 시 교육청에 반납했다.

앞서 시 교육청은 고려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교장과 교감, 교사 등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고려학원에 대해서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교육청은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채만 기자

무등산 생태관광프로그램 내달 운영

무등산·광주호 호수생태원의 생태 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프로그램이 오는 9월부터 운영된다.

10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생태탐방원에 따르면 무등산 생태관광프로그램이 2022년 상반기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무등산생태탐방원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은 '가을, 추억을 담다', '오리야! 다음 겨울에도 여기서 만나' 등 총 2개 프로그램이다.

무등산생태탐방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탐방객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https://reservation.knps.or.kr/)에서 참가 신청 하면된다. /오복 기자

북구청장-신규 공직자 거리 좁히기 '눈길'

밸런스 게임 등 이색 소통…"키다리 아저씨 같은 구청장 될 것"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신규 공직자와 다양한 주제로 솔직담백한 대화를 나누며 세대 간 거리를 좁혔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신규 공직자와 문 청장 간 대담은 평소 신규 공직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중시했던 문 청장의 참여의지에 따라 마련됐다.

전날 북구는 광주 북구청 유튜브 채널에 '솔직토크'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엔 문 청장과 신규 직원 3명 간 안부대화와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프리토크, 밸런스 게임, 구청장 다짐 챌린지 등이 담겼다.

영상 초반, 문 청장과 처음으로 대면한 신규 직원들의 얼굴엔 다소 긴장한 기색이 맴돌았다. 하지만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하게 바뀌었다. 또 세대 간 차이로 대화 도중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기도 해 일순간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문 청장과 신규 직원들은 대화를 통해 같은 의견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자 이야기를 전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청장은 가족 뒷바라지, 선거기간 내조 등 그동안 고생했던 배우자에게 보내는 애틋한 영상편지도 남겼으며, 구청장 다짐 챌린지에서는 주민들과 직원들의 힘든 점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책임감 있게 해결하는 '키다리아저씨 같은 구청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문 청장은 "신규직원들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신규 직원들에게서 북구 행정의 미래를 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15일 고려인마을서 홍범도 장군 흉상 제막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1주년과 광복 제77주년을 맞아 광주 광산구가 고려인마을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건립, 15일 제막식을 개최한다.

특히, 고려인에게 한국문화를 전파하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역할을 한 장원창 전 러시아 사할린교육원 원장에 광산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제막식은 이날 오후 5시부터 '홍범도 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월곡동 다모아어린이공원에서 '바람이 되어, 카자흐스탄에서 월곡으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의 아리랑, 홍범도 장군의 주제영상 등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흉상 건립을 축하하며 함께 해준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월곡동 주민이자 홍범도 장군의 후손인 남양 홍씨 전국 종친회 홍우표 회장을 비롯한 '홍범도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장군이 다시 살아온 듯 강직하고 굳센 기개를 재현한 작품을 제작한 김희상 작가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특히, 추진위원으로 참여해 흉상 건립에도 적극 참여한 장원창 전 원장에게 광산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이옥근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순천의 웃으며 장보는 길
100년 전통 순천웃장
웃 장

◉ 장이 서는 날 ◉ 5, 10일

정원의 도시 순천 아랫장
5일마다 열리는 만 가지 행복
아랫장

◉ 장이 서는 날 ◉ 2, 7일

활력 넘치는 신선한 매일시장
순천 역전시장
역전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일시장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순천의 중심! 중앙시장
중앙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일시장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문의 : 062)650-2099 후원 : 순천시 Suncheon-si